

고용보장! 일터 괴롭힘 금지! 정년연장! 간부 교육시간 확보!
업무시간 외 근무지시 금지! 회사 내 식당 GMO식품 사용 제한! 기본급 123,526원 인상!



지부교섭 속보

02호

2019.05.03(금)

■발행처:교육선전부 ■발행인:김정태 ■주소:충북 청주시 흥덕구 복대동 3060번지 근로자복지회관 2층 ■전화:043-236-5077 ■http://dc.kmwu.kr

임금인상 통해 경제 살리자!

기업 이윤 늘어나면 낙수효과로 잘살거라는 신자유주의는 끝났다!

2차 교섭 통해서 요구안 설명

2차 지부교섭이 5월 2일(목) 15시 대전의 한국 로버트보쉬에서 열렸다. 이 날 교섭에서 지부는 요구안에 대한 설명을 진행했다. 임금인상을 비롯해 총 7가지 요구안의 내용과 배경 취지를 설명했다. 김정태 지부장은 “임금 깎고 기업 이윤이 늘어나면 낙수효과가 있다고 했지만, 실패했다. 임금인상을 통해 소비를 촉진시키는 것이 경제에 더 좋을 것이다.”며 임금 인상 요구의 취지를 설명했다.

사측은 “전반적으로 경기 지표가 어려워지고, 보쉬도 지난 몇 년간에 비해 가동율이 좋지 않다.”면서 부정적 전망을 내놨지만, 김정태 지부장은 “구조조정이나 인력감축은 자제하고 슬기롭게 넘기면서 노사가 같이 함께 살 수 있는 방향을 모색하자.”고 제안했다.

7가지 요구안 성실하게 논의하자!

지부는 올해 지부교섭에서 아래의 7가지 요구안을 다룬다.

- 임금인상 : 월 기본급 123,526원 인상
- 일터 괴롭힘 금지
- 고용 보장 : 비정규직 포함해 총고용 보장

- 조합간부 유급 교육시간 : 년1회 2박3일
- 업무시간 외 근무지시 금지
- 정년 연장 : 국민연금 수급 직전 연도까지
- 회사 내 식당 개선 : GMO식품 사용 제한

어려운 경제상황을 살리기 위한 방안으로 임금인상을 통한 소비촉진을 제안했다. 또 경제상황을 빌미로 자본이 구조조정이나 인력감축에 나서지 못하도록 총고용 보장 요구를 담았다. 금속노조의 체계적 교육을 위한 교육연수원 건립에 따라 간부 교육시간을 요구했다. 만60세 정년 이후 국민연금을 받지 못하는 기간을 보완하기 위해 정년 연장 요구도 함께 하고 있다.

노동법 개악 저지! 2019임단투 승리!

문재인 정부가 노골적으로 자본편향적으로 돌아서고 있다. 노조법 개악도 그 일환으로 노조의 손발을 다 잘라버리는 효과를 낼 것이다. 올해 투쟁은 정부, 국회의 노동법 개악을 막아내고 임단투를 통해서 우리의 고용과 임금을 지키는 싸움이 될 것이다. 5월 노동법 개악 총파업을 시작으로 임단투까지 승리로 나아가자!

2차 교섭 속기록

구조조정 자제하고 노사 함께 살길 찾자

사 : 보쉬 대표이사가 출장 중이라 대신 인사말 전한다. 2주전에 상견례 했는데, 날씨가 껏었다가 화창해졌다. 날씨와 더불어서 경기도 좋아져야 하는데, 다 알지만 전반적 경기지표가 어려워지고 있다. 우리 회사도 지난 몇 년 간에 비해 가동율이 좋지 않다. 지부 교섭이 잘 마무리되면 좋겠다.

노 : 요새 밖이 시끄럽다. 국회의원도 그렇게 잘 싸우는지 몰랐다. 혼란스러운 시대에 사는 것 같다. 경제도 상당히 어렵다. 우리도 지역에 18개 사업장이 있는데 몇몇 사업장 말고 물량도 감소하고 힘든 게 사실이다. 그런 점에서 올해 교섭이 상당히 어려울 거라 판단한다. 자유한국당이 문재인 정부가 경제 망친다고 하는데, 사실 자유한국당이 몇십년동안 들여온 신자유주의가 한계에 온 게 확실한 것 같다. 문재인 정부도 회귀하는 것 같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손잡고 하는 것 보니 다시 신자유주의로 회귀하는 것 같다. 그러다고 경제가 살 것 같진 않다. 세계적으로 한계가 드러나고 있고 다른 길을 모색하고 있는데 우리나라는 거꾸로 가서 안타깝다. 정책 전체를 바꾸는데 한계가 있지만, 금속노조도 중앙 차원에서 정부 정책을 논의하는 자리가 있는 만큼, 올해 교섭은 서로가 천천히 이해하는 범위에서 만들어가면 좋겠다. 사측에서 구조조정이나 인력감축은 자제하고 슬기롭게 넘기면서 올해 노사가 같이 살 수 있는 방향을 모색하는 한해가 되면 좋겠다. 지부요구안 설명하겠다. 임금인상 비롯해 7가지 요구안이다.

[임금인상 : 월 기본급 123,526원 인상]

[일터 괴롭힘 금지]

[고용 보장 : 비정규직 포함해 총고용 보장]

[조합간부 유급 교육시간 : 년1회 2박3일, 24시간]

[업무시간 외 근무지시 금지]

[정년 연장 : 국민연금 수급 직전 연도 말일까지]

[회사 내 식당 개선 : GMO식품 사용 제한]

사 : 설명 잘 들었다. 다음 교섭부터 질의응답을 드리겠다. 심도있게 이해의 폭을 넓히고 얘기 나누면 해법을 찾을 수 있을 것 같다. 오늘 설명 들은 걸로 마무리하고 다음주에 질의하겠다.

노 : 그렇게 하자. 올해 요구안 관련해서 경제가 어렵고, 시대가 어렵다보니 그에 맞춰 요구안을 제출했다. 노조가 지향하는 목표에 있어서 금속노조 교육연수원 건립과 함께 체계적 교육을 위해 교육시간을 요구했다. 또 기업이 임금을 깎아서 이윤을 내야 낙수효과가 있다고 했던 것은 폐기가 필요하다. 임금인상을 통해 소비를 촉진시키는 것이 경제에 더 좋지 않겠냐는 측면에서 임금인상도 요구했다. 질문은 다음 주에 하는 걸로 하자.

사회 : 차기 교섭은 사전에 실무에서 논의된 대로 5월 9일(목) 15시 지부 회의실에서 하겠다.